



가계경제 적신호, 2009년 경제위기와 ‘닭았다’

2016. 7. 4 | 최정은_새사연 연구원 | jechoi@saesayon.org

가계동향조사 2006년~2015년 연간 원자료를 분석해보면, 최근 가계경제 상황은 2009년 경제위기 못지않게 나쁘다. 최근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비지출도 감소한데다, 경기불황에 따른 불안감마저 가중되면서 소비지출을 더 큰 폭으로 줄이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1인가구의 경제력이 취약하며, 자녀유무에 따라 흑자액 차이가 커 출산은 쉽지 않은 선택이 되고 있다. 또한 노인가구의 적자비율은 광범위하고, 청년가구의 적자액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도시 2인 근로자가구 이외의 다양한 가구의 현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세대별로는 전 세대뿐 아니라 청년가구,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추이와 가구형태별로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자녀부부가구, 유자녀부부가구를 포함해 분석이 이뤄졌다.

가계동향조사 2006년~2015년 연간 원자료를 분석해보면,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비지출도 감소한데다, 경기불황에 따른 불안감마저 가중되면서 소비지출을 더 큰 폭으로 줄이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가구(20~39세)의 소득은 2013년부터 감소세로 바뀌면서 소비지출과 흑자율 모두 축소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취업률과 종사상지위와 관련성이 높게 드러나고 있다. 노인가구(65세 이상)는 소득이 낮아 가계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적자생활을 이어오다 최근 개선된 듯 보이나, 여전히 경기 상황에 취약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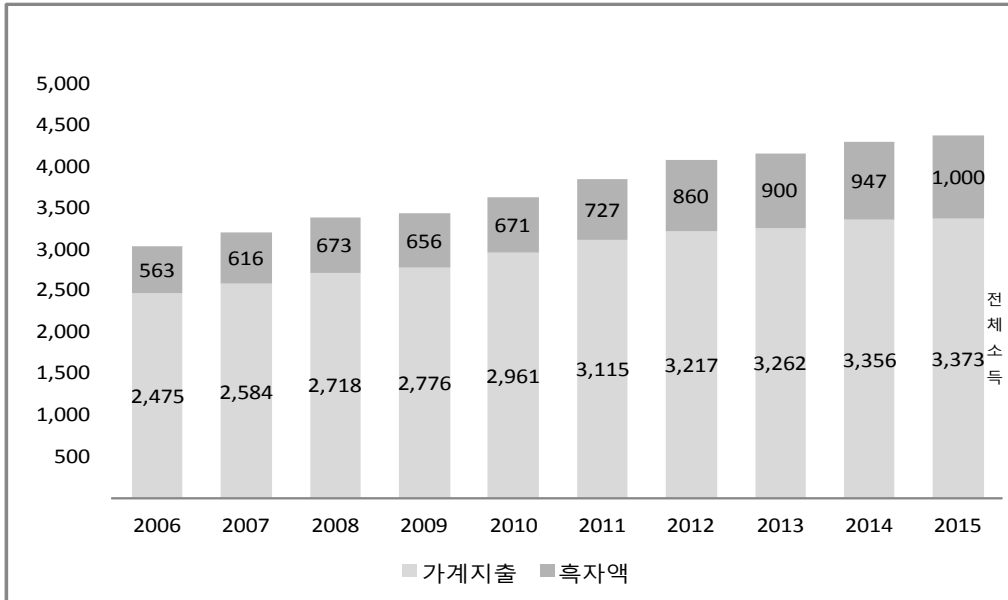
본 연구 분석 결과, 1인가구는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특히 1인 노인가구는 기본 소득이 낮아 기본생활조차 이어가기 쉽지 않으며, 청년 1인가구의 흑자율도 2009년 이래로 하락세를 지속하다 최근 호전되는 모습이다. 자녀의 유무가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과 양육이 쉽지 않은 선택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세대별로 적자율과 적자규모를 파악해보면, 세대별로 적자가구비율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노인과 청년가구의 특징이 나타난다. 노인가구의 적자가구비율은 전체나 청년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고, 청년가구는 평균 적자액이 가장 높다.



소득 증가율과 흑자율 둔화, 2013년부터 뚜렷

그림1. 전국가구 2인 이상 가계지출과 흑자액 추이(2006~2015년)
(단위 : 천원) (단위 : %)



참고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년~2015년 원자료

참고2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참고3 : 좌측 축 - 전국가구 2인 이상 가계지출 / 우측 축 - 전국가구 2인 이상 흑자액

전국가구 2인 이상 월평균 소득은 분석기간 평균 374만 5천원으로, 매년 14만 8천 원(4.1%)이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소득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되기 시작했다. 미국발 경제위기로 불안감이 팽배하던 2009년의 전년대비 소득 증가율은 4만 1천 원(1.2%)이 오른 것과 비교해보면 최근 전년대비 소득 증가율은 2013년 8만 5천 원(2.1%), 2014년 14만 1천 원(3.4%), 2015년 7만 1천 원(1.6%) 수준이다. 이는 분석기간 매년 평균 소득 증가율보다 낮은 상황이다.

가계지출은 분석기간 평균 298만 4천원으로, 매년 10만원(3.5%)이 올랐다. 세계 경제위기를 맞은 2009년 가계지출이 전년대비 월평균 5만 8천 원(2.1%) 오른 것과 비교해 2013년 가계지출 증가액은 전년대비 4만 5천 원(1.4%), 2014년 9만 4천 원(2.9%), 2015년 1만 8천 원(0.5%)로 축소되고 있으며, 분석기간 가계지출 평균 증가율 보다 더 낮은 가계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가계의 흑자액은 분석기간 평균 76만 1천원으로, 매년 전년대비 평균 4만 9천 원(6.7%)이 올랐으나, 최근 소득증가가 감소되면서 가계지출과 흑자액도 축소되고 있다. 흑자율은 전년대비 2013년 4.7%, 2014년 5.2%, 2015년 5.6%로, 경기 불안에 따른 소비위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1. 전국가구 2인이상 소득과 가계지출 추이(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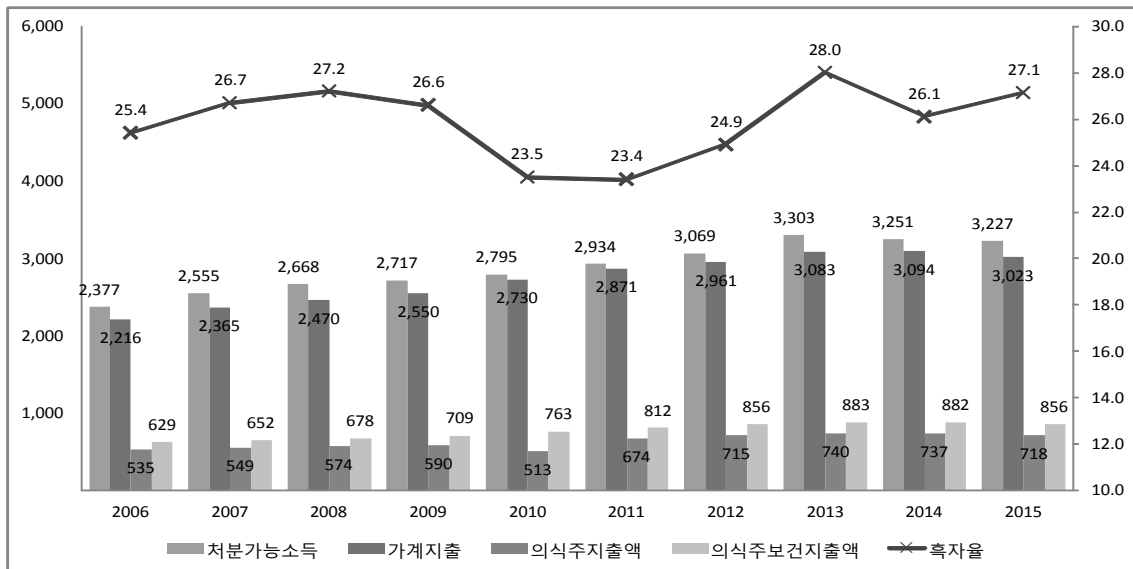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분석기간 평균
월평균 전체소득	3,038	3,200	3,391	3,432	3,632	3,842	4,077	4,162	4,302	4,373	3,745
전년대비 증가액(천원)	(기준)	162	191	41	200	210	235	85	141	71	148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5.3	6.0	1.2	5.8	5.8	6.1	2.1	3.4	1.6	4.1
월평균 가계지출	2,475	2,584	2,718	2,776	2,961	3,115	3,217	3,262	3,356	3,373	2,984
전년대비 증가액(천원)	(기준)	108	134	58	185	154	102	45	94	18	100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4.4	5.2	2.1	6.7	5.2	3.3	1.4	2.9	0.5	3.5
월평균 흑자액	563	616	673	656	671	727	860	900	947	1,000	761
전년대비 증가액(천원)	(기준)	53	56	(16)	14	56	133	40	47	53	49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9.5	9.1	(2.4)	2.2	8.3	18.4	4.7	5.2	5.6	6.7

청년가구 소득 감소, 고용 영향 커

그림2.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추이(2006~2015년)

(단위 : 천원)

(단위 : %)



참고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년~2015년 원자료

참고2 : 처분가능소득 = 전체소득 - 비소비지출

참고3 : 흑자율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

참고4 : 좌측 축 - 청년가구(20~39세)의 처분가능소득, 가계지출, 의식주지출, 의식주보건지출/

우측 축 - 청년가구(20~39세)의 흑자율

청년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분석기간 평균 289만원으로, 매년 평균 9만 4천원



(3.5%)이 올랐다. 그러나 2014년에는 청년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오히려 전년대비 5만 1천원(-1.6%)이 감소, 2015년 2만 5천원(-0.8%)이 줄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2009년 청년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이 전년대비 5만원(1.9%)이 오른 것과 비교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분석기간 평균 273만 6천원으로 매년 평균 9만원(3.5%)이 올랐으나, 2014년 전년대비 1만 2천원(0.4%)이 소폭 오르고, 2015년 7만 2천원(-2.3%)이 오히려 축소되었다. 소득 증가가 둔화되면서 소비지출도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현상과 관련해 청년가구의 취업률과 종사상지위와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최근 청년가구의 취업률을 보면 2014년 청년가구 중 취업자비율은 91.9%였으나, 2015년 91.6%로 줄어든 현상에 주목해볼 수 있다. 또한 청년가구의 종사상지위를 확인해보면, 2014년과 2015년 상용근로자 비율은 71.2%→70.4%, 임시근로자는 10.3%→11.7%, 일용근로자는 1.9%→2.1%로 변화했다. 이처럼 청년가구 내 취업자 비율이 줄어든 데다, 상용근로자 비율이 줄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청년가구의 소득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2. 청년가구 소득과 지출 추이(단위: 천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분석기간 평균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2,377	2,555	2,668	2,717	2,795	2,934	3,069	3,303	3,251	3,227	2,890
전년대비 증가액(천원)	(기준)	178	113	50	78	139	135	233	(51)	(25)	94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7.5	4.4	1.9	2.9	5.0	4.6	7.6	(1.6)	(0.8)	3.5
월평균 가계지출	2,216	2,365	2,470	2,550	2,730	2,871	2,961	3,083	3,094	3,023	2,736
전년대비 증가액(천원)	(기준)	149	105	80	180	141	90	122	12	(72)	90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6.7	4.4	3.2	7.1	5.2	3.1	4.1	0.4	(2.3)	3.5
흑자율	25.4	26.7	27.2	26.6	23.5	23.4	24.9	28.0	26.1	27.1	25.9
월평균 흑자액	603	682	726	722	658	686	764	924	847	876	749
전년대비 증가액(천원)	(기준)	79	44	(4)	(64)	28	78	160	(77)	28	30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13.0	6.4	(0.6)	(8.9)	4.3	11.4	20.9	(8.3)	3.3	4.6
월평균 의식주 지출액	535	549	574	590	513	674	715	740	737	718	634
전년대비 증가액(천원)	(기준)	14	25	17	(78)	162	40	26	(3)	(0.1)	22
의식주지출 비중(%)	30.1	29.3	29.5	29.6	29.7	30.0	31.0	31.1	30.7	30.5	30.2
월평균 의식주보건 지출액	629	652	678	709	763	812	856	883	882	856	772
전년대비 증가액(천원)	(기준)	23	26	31	54	49	44	27	(0.2)	(0.3)	28
의식주보건 지출 비중(%)	35.4	34.8	34.9	35.5	35.7	36.1	37.1	37.1	36.7	36.4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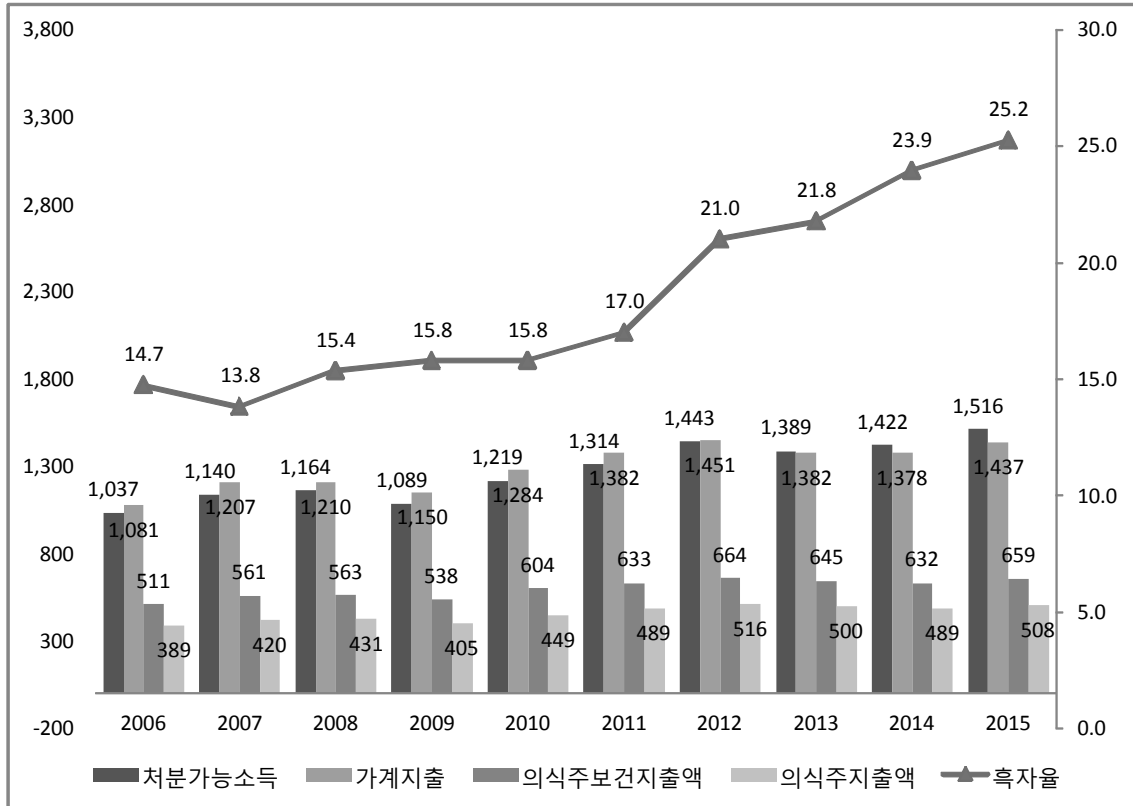


노인 가구, 의식주지출 비중 높아

그림3.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추이(2006~2015년)

(단위 : 천원)

(단위 : %)



참고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년~2015년 원자료

참고2 : 처분가능소득 = 전체소득-비소비지출

참고3 : 흑자율 =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참고4 : 좌측 축 - 노인가구(65세 이상)의 처분가능소득, 가계지출, 의식주지출, 의식주보건지출/
우측 축 - 노인가구(65세 이상)의 흑자율

노인가구의 분석기간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127만 3천원으로 매년 평균 5만 3천원(4.5%)이 증가했다. 그러나 2009년 전년대비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이 7만 6천원(-6.5%)이 오히려 감소한 것과 비교해보면, 2013년 전년대비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이 5만 5천원(-3.8%)이 줄어든 상황과 비슷하다. 이처럼 노인가구가 불황기에 경제적으로 취약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노인가구의 지출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노인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 평균은 129만 6천원으로 동기간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초과해 평균적으로 적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2009년 전년대비 월평균 가계지출액이 5만 9천원(-4.9%)이 줄어든 것과 비교해 2013년에는 전년대비 월평균 가계지출액은 6만 9천원(-4.7%)이 축소, 2014년에는 4천원(-0.3%) 감소, 2015년 5만 9천원(4.3%))으로 증가되고 있다.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중에서 의식주지출액은 분석기간 평균 46만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중 44.5%를 차지한다. 노인가구의 의식주보건비 지출액은 분석기간 평균 60만 1천원으로 그 비중은 소비지출비 중 58.2%로, 필수 지출이 소비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3. 노인가구(65세 이상)의 소득과 지출 추이(단위: 천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분석기간 평균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1,037	1,140	1,164	1,089	1,219	1,314	1,754	1,389	1,422	1,516	1,273
전년대비 증가액(천원)	(기준)	103	25	(76)	130	95	440	(365)	33	94	53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9.9	2.2	(6.5)	12.0	7.8	33.5	(20.8)	2.4	6.6	4.5
월평균 가계지출	1,081	1,207	1,210	1,150	1,284	1,091	1,140	1,382	1,378	1,437	1,296
전년대비 증가액(천원)	(기준)	126	2	(59)	134	(193)	49	242	(4)	59	40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11.7	0.2	(4.9)	11.7	(15.1)	4.5	21.2	(0.3)	4.3	3.4
흑자율	14.7	13.8	15.4	15.8	15.8	17.0	21.0	21.8	23.9	25.2	18.4
월평균 흑자액	153	157	179	172	192	223	303	302	340	383	241
전년대비 증가액(천원)	(기준)	5	21	(7)	20	31	80	(1)	38	42	26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3.0	13.6	(3.9)	11.9	16.0	35.9	(0.3)	12.6	12.4	11.2
월평균 의식주지출액	389	420	431	405	449	489	516	500	489	508	460
전년대비 증가액(천원)	(기준)	31	10	(25)	43	41	27	(16)	(11)	19	13
의식주 비중(%)	44.0	42.8	43.7	44.2	43.7	44.8	45.3	46.0	45.2	44.8	44.5
월평균 의식주보건 지출액	511	561	563	538	604	633	664	645	632	659	601
전년대비 증가액(천원)	(기준)	50	2	(25)	66	29	31	(19)	(12)	26	16
비중	57.8	57.1	57.1	58.7	58.9	58.0	58.2	59.3	58.5	58.1	58.2

1인가구 소득과 흑자율 정체, 독거노인 가장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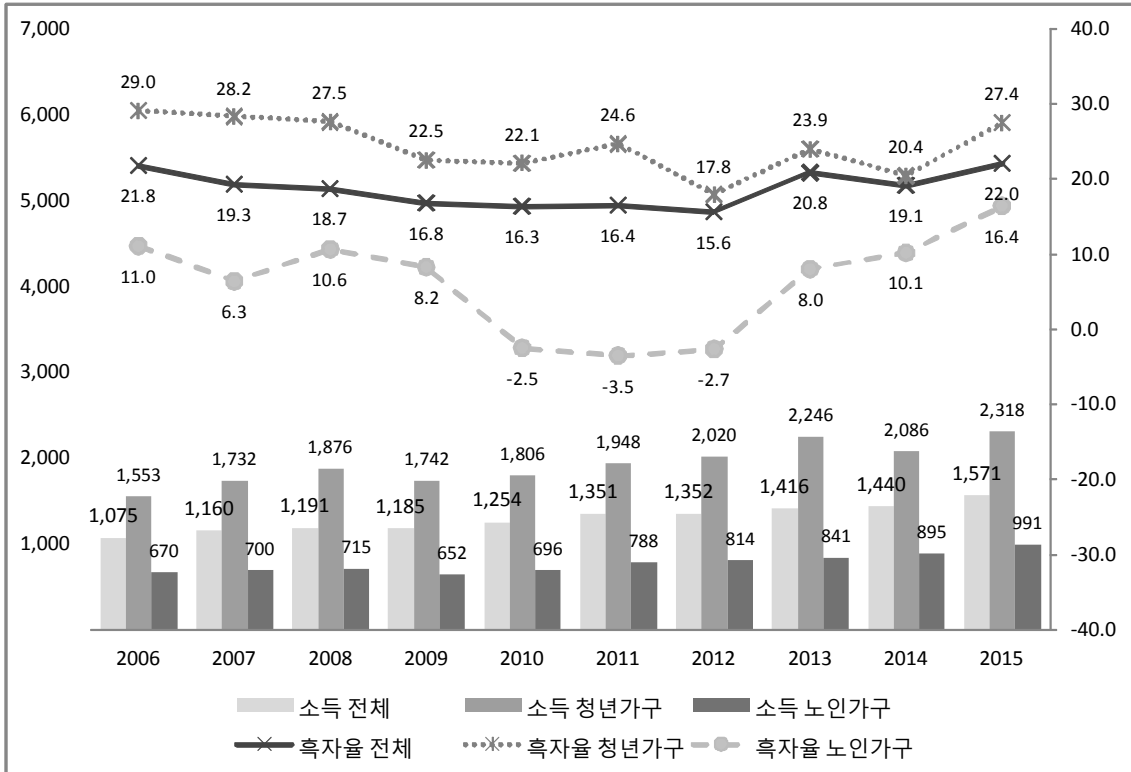
1인가구의 전체소득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월평균 소득은 129만 9천원으로 매년 평균 5만 5천원(4.2%)이 올랐다. 2014년 전년대비 월평균 소득이 2만 4천원(1.7%) 소폭 증가했고, 2015년 13만 1천원(9.1%)로 올랐다. 1인가구의 흑자율도 분석기간 평균 18.7%지만, 2012년 15.6%까지 내려갔다가 2014년 19.1%, 2015년 22.0%로 더디게 개선되고 있다.



그림4. 1인가구의 소득과 흑자율 추이(2006~2015년)

(단위 : 천원)

(단위 : %)



참고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년~2015년 원자료

참고2 : 흑자율 =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참고3 : 좌측 축 - 1인가구 중 전체, 청년(20~39세), 노인(65세 이상)의 소득 / 우측 축 - 1인가구 중 전체, 청년(20~39세), 노인(65세 이상)의 흑자율

1인가구 중 청년가구의 소득은 분석기간 평균 193만 3천원으로, 매년 평균 8만 5천원(4.8%)이 증가했다. 그러나 2009년 1인 청년가구의 전년대비 소득이 13만 4천원(-7.1%)이 줄어든 것과 비교해, 2014년 15만 9천원(-7.1%) 감소, 2015년 23만 2천원(11.1%)이 올라 약간 회복된 상태로, 2009년 상황보다 낫지 않다. 청년가구의 흑자율은 분석기간 평균 24.3%로, 매년 평균 -0.2%로 감소했다. 청년가구의 흑자율은 2014년은 전년대비 -3.5%에서 2015년 7.1%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가계 여력이 높지 않다.

1인가구 중 가장 취약한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분석기간 평균 77만 6천원으로, 매년 3만 6천원(4.6%)이 올랐다.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가구의 소득은 1인가구 전체 소득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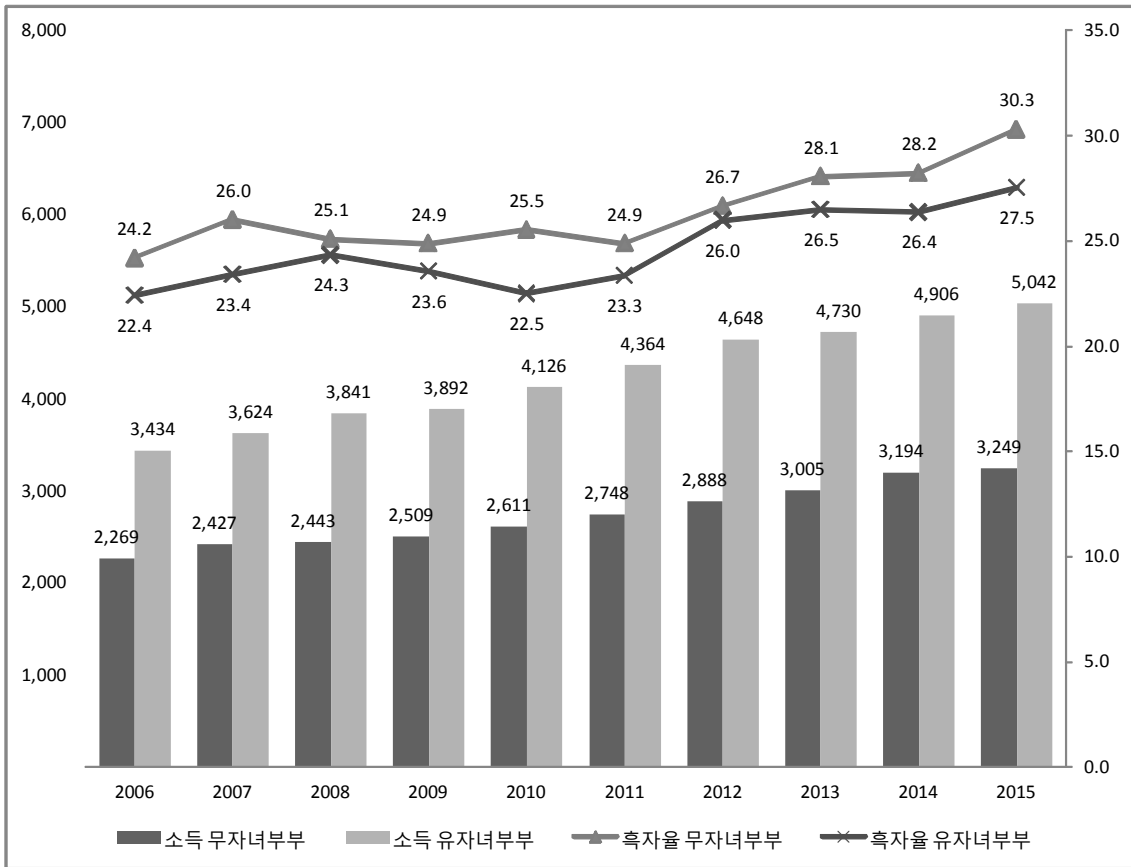


자녀 유무에 따라 경제 여력 차이 커져

그림5. 무자녀부와 유자녀부의 소득과 흑자율 추이(2006~2015년)

(단위 : 천원)

(단위 : %)



참고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년~2015년 원자료

참고2 : 흑자율 =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참고3 : 좌측 축 - 무자녀부부와 유자녀부부의 소득 / 우측 축 - 무자녀부부와 유자녀부부의 흑자율

무자녀부부가구의 소득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평균 273만 4천원으로 매년 10만 9천원(4.1%)이 증가했고, 흑자율은 평균 26.4%다. 유자녀부부의 분석기간 월평균 소득은 426만 1천원으로 매년 17만 9천원(4.4%)이 올랐지만, 흑자율은 평균 24.6%로 무자녀부부가구보다 낮다.

무자녀부부와 유자녀부부를 비교해보면, 유자녀부부의 소득이 무자녀부부보다 152만 6천원이 많지만, 흑자율은 1.8%p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소득 증가율이 완화되더라도 자녀가 있다면 관련 소비지출은 줄일 수 없는 필수 부문으로, 가계의 경제 여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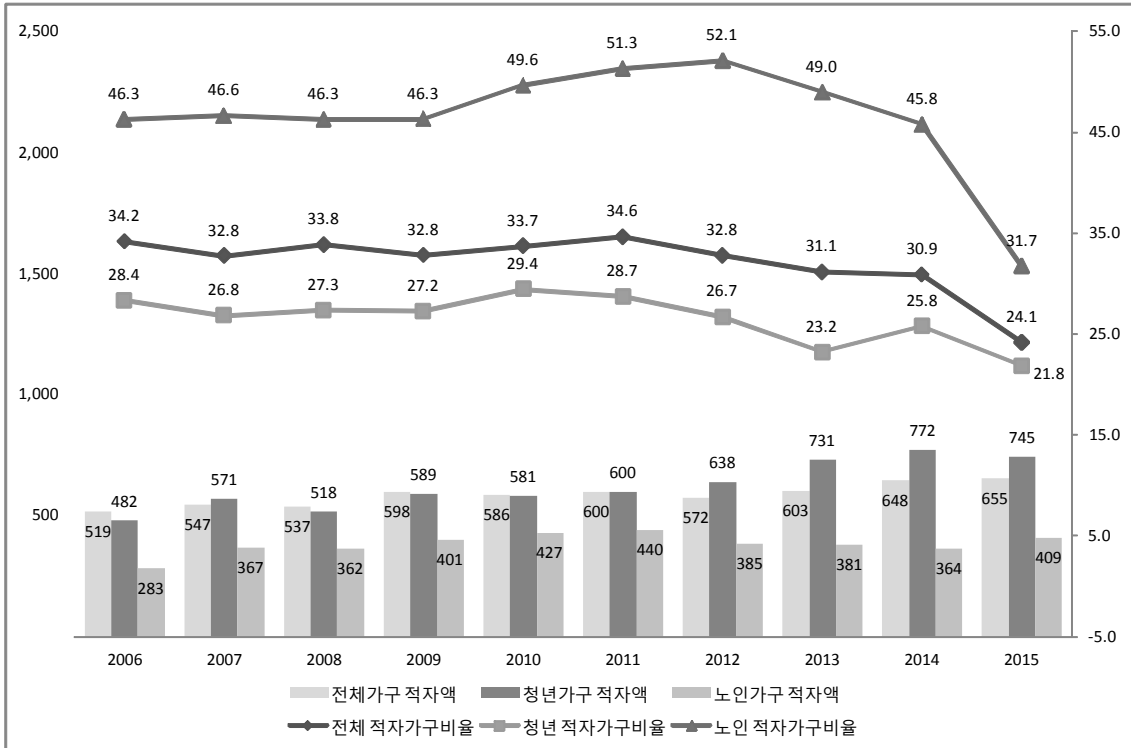


노인 적가가구 많고, 청년가구 적자액 높아

그림6. 세대별 적자액과 적자가구비율 추이(2006~2015년)

(단위 : 천원)

(단위 : %)



참고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년~2015년 원자료

참고2 : 적자액 = (전체 소득-가계지출)

참고3 : 좌측 축 - 전체가구, 청년가구(20~39세), 노인가구(65세 이상)의 적자액 / 우측 축 - 전체가구, 청년가구(20~39세), 노인가구(65세 이상)의 적자가구비율

적자가구비율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평균 전체 적자가구비율은 32.1%, 청년가구는 26.5%, 노인가구는 46.5%로 노인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 연도별 추이로 보면, 소득 증가가 둔화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적자가구비율도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다.

그러나 적자액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전체가구의 평균 적자액은 -58만 6천원, 청년가구는 -62만 3천원, 노인가구는 -38만 2천원으로 청년가구의 적자액이 가장 높다. 특히 청년가구의 적자액이 2013년 -73만 1천원, 2014년 -77만 2천원, 2015년 -74만 5천원으로, 적자액 규모가 소득에 견줘 적지 않아 청년생활을 악화시키고 있다.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7월 4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불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 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강세진
노동	6/14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새사연 노동연구팀
사회	7/4	가계경제, 2009년 경제위기와 닮았다	최정은